

'4차순환도로 건설' 현장답사

공동협의회 본격 활동

시·시민단체 공동협의회는 9일 오후 4차순환도로(상인~범물)건설 관련 2차 회의를 대구 경북연구원 회의실(18층)에서 갖기로 하고, 우선 현장답사를 실시하는 등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갔다.

대구시는 지난 1월 31일 공동협의회 1차 회의에 이어 2차 회의를 갖기로 하고, 우선 현장

현황을 파악하기 위해 현장을 답사하는 등 본격적으로 활동기로 했다.

이번 회의에서는 4차순환도로(상인~범물)건설구간인 상인동 달비골, 파동 용두골, 범물동을 현장 답사해 사업현황에 대해서 설명을 듣고 도로건설에 대한 문제점 파악에 나설 계획이다.

박무환기자

pmang@kyongbuk.co.kr